

13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Chapter

마 26:6~13, 막 14:3~9, 요 12:1~8

찬송가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 145장 (주께 드리는 나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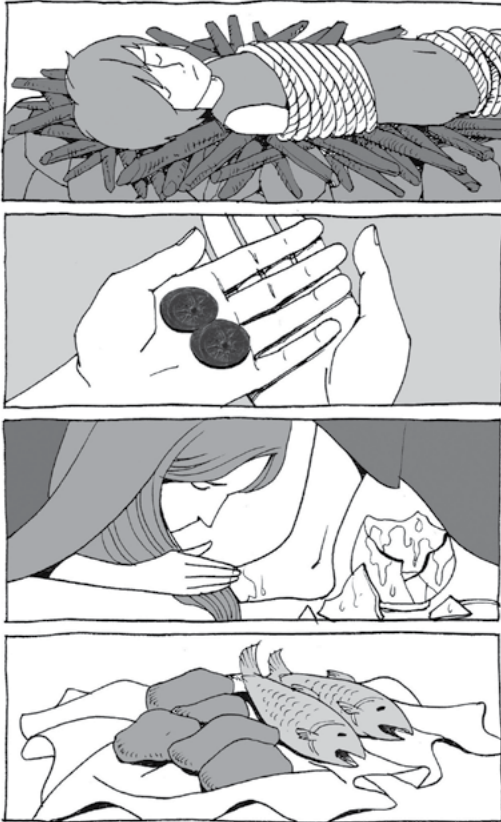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기에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음을 압니다.
2.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필요함을 압니다.

마음 열기



주님을 향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겁니까? 적어 보고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킁박을 받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따뜻하게 대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과거 주님은 병들어 죽은지 나홀이 나된 오빠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시기도 했으며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몇새 전 베다니에서 문둥이로 있다가 나음을 입은 시몬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참석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었고, 마르다는 부지런히 수고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를 본 몇몇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히 여겼는데 특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이를 삼백 데나리온을 허비하는 행위라며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그 전에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저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 (요12:2~3)

There they made Him a supper; and Martha served, but Lazarus was one of those who sat at the table with Him. Then Mary took a pound of very costly oil of spikenard,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oil. (Jn 12:2~3)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창 22:8~12)

(삼상 1:25~28)

(약 1:22~25)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오늘 본문 중 요한복음 12장 1~8절을 읽고 다음에 답해 보세요.

1.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어 보세요.
 - ① 마르다 :
 - ② 나사로 :
 - ③ 마리아 :
 - ④ 가롯 유다 :
2. 마리아는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녀를 변호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므로 서둘러 장사하느라 그 몸에 향품을 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부어드리고자 무덤으로 향했지만 결국 향품을 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6 절을 읽고 적어 보세요.
4.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그 몸에 향유를 부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마리아는 어떻게 알고 예비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8~42 절을 읽고 생각한 후 적어 봅시다.
5.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징계는 자녀의 증거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절 그대로 놔두시네요.



아무래도
전 막내처럼 사랑
받나 봐요.



흐음...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군요.

무슨 말씀을...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히 12:6~8)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인도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어느 날 아침, 몇 번이나 전도하려고 했던 힌두교 여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그녀의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주 잘 생기고 똑똑하게 보이는데다 건강했던 반면,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는 침을 흘리고 있었고, 몸은 병에 걸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녀 역시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힌두교 여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녀는 “저는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들에게 이 아이 중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강으로 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는 급히 그녀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전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선교사는 그 힌두교 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데리고 있는 아이는 몸을 떨며 침을 흘리는 병든 아이였습니다. 의아해진 선교사가 다른 아이에 관해 물었을 때 힌두교 여인은 “기억 못하세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우리의 신들에게 내 아이의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강에 간다고 말했죠.”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 중 하나를 신들에게 드려야 했다면 왜 이 아이가 아닌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를 드렸습니까?” 그러자 힌두교 여인은 경악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힌두교는 우리가 섬기는 신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바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
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2~13)



♥ **나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기도의 응답 과정**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감사가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 **기도의 결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나 묵상이 되었던 부분을 적어 보세요)

